



내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목포서 개최

- 8일 전국해양스포츠제전위원회서 최종 결정...내년 8월 개최 예정 -

내년 제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는 전남 목포시로 최종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7월 개최지를 공모한 결과 부산시, 통영시, 울산시, 목포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응모, 현지 실사를 거쳐 7일 해양부, 대한체육회, 해양소년단연맹, 경기단체 대표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위원회에서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면적 47.92km², 인구 24만명으로 요트, 카누 등 공식종목을 치를 수 있는 평화광장 일원과 전국체전 등을 치러낸 카누 조정경기장 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서남해권역 해양관광도시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체험형 해양레저와 전문 해양스포츠가 어우러진 지역 문화축제의 장으로, 해양부가 주최하고 개최지역 지자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및 해양소년단연맹이 주관하게 된다.

경기종목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전문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요트, 비치발리볼, 카누 등 5개 공식 종목과 일반인 대상의 수상오토바이, 윈드서핑 등 4개 변외종목 및 13개 체험종목으로 진행하며, 약 4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대회를 통해 해양스포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친 해양문화의 저변확산은 물론 서남해권역의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의 : 전국해양스포츠제전기획단 부단장 장황호 서기관 김창곤
TEL : 02-3674-6503 / FAX : 02-3674-6507

